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2011학년도

내 꿈을 키우는 독서공책



학 번	
이 름	

신곡중학교 삼매당(三昧堂)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걸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네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Sam levenson]

= 오드리 헵번이 숨지기 1년 전 크리스마스에 아들에게 들려 준 시

책을 읽어 푹푹해지면 무엇을 위해 쓸지 생각해 봅시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즐거울 끈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Photo by sreak